

6·4 지방선거 표밭 점검

만만치 않은 6자 대결 판세 혼전

새정치 후보-무소속 현군수 '2강'

■ 화순군수 후보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이름 구중곤(55)	전형준(58)	구복규(59)	배동기(58)	임호경(62)	임갑수(49)
경력 ·전 전남도립대 총장	·전 화순군수	·전 전남도의원	·전 화순군 부군수	·전 화순군수	·전 국회의원 비서관
주요 공약 ·70세 이상 어르신 20만원 건강장려금 지급 ·광주고교 공동학내제 편입 ·화순 유통소매주주 출자금 원금 보장	·7000억원 예산 확보 ·10만평 첨단원예단지 조성 ·마을기업 300개 조성으로 6000개 일자리 창출	·힐링종합문화대전 개최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 회생	·인구 10만 유치 위한 의료 도시 건설 ·태마공원 조성 ·인구 10만이 넘는 의료관광 단지 조성	·화순을 화순시 승격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화순유통회사 창설 ·면 단위 권역별 특화개발을 통한 주민 소득증대	·임가내 전남대 의과대학 이전·주민자문단 설립 ·주민 감사제 및 예산제 운용으로 시민참여행정 확대 ·화순복지재단 설립

화순군수

화순군수 선거 결과는 전국적인 관심사다. 그동안 논란을 불렀던 형제·부부 군수 후보가 군민의 심판을 받게되며 다시 출마했기 때문이다.

화순군은 민선 5기 동안 총 4명의 군수가 구속되면서 재보궐 선거만 무려 3번을 치렀다. 특히, 나머지 군수의 부인과 동생이 재보선을 통해 부부군수, 형제군수로 당선돼 전국적으로 유명을 치른 바 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임호경, 전형준 전 군수가 당시자들이다.

전체적인 판세는 혼전 양상이다. 35% 내외의 지지율을 확보한다면 당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구중곤 후보와 무소속의 구복규, 배동기, 임갑수, 임호경, 전형준 후보의 6자 대결 구도다.

구중곤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을 받기는 했지만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독주 후보 없어 "득표율 35% 내외서 승부"

"화순 명예 회복" 사고 선거구 오명 탈피 강조

부부 군수의 임호경 후보와 형제 군수의 전형준 후보의 조직력에 맞서야 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3명의 무소속 후보들과 경쟁을 펼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 후보 측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통적인 지지표와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민심이 확산되고 있어 승리는 무난하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임호경 후보는 과거에 대한 많은 반성과 성찰을 했으며 화순의 시 승격 기반 조성 등 화순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출마표를 던졌다. 임 후보 측에서는 특유의 조직력과 함께 그동안 진정성을 바탕으로 꾸준히 바닥을 다져왔으며 승리를 자신한다는 입장이다.

형제 군수 후보인 무소속 전형준 후보도 조직력에서 그 누구에 뒤지지 않는다

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후보는 예산 7000억원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 등 '경제군수론'으로 형제 군수라는 부정적 인식을 넘어 승리를 일궈내겠다는 계획이다.

무소속 구복규 후보와 배동기 후보도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우선 구 후보는 화순읍장과 전남도의원을 지내면서 다져온 바닥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화순군 부군수 출신의 배동기 후보도 특유의 친화력으로 지지세를 넓혀가고 있다.

무소속의 임갑수 후보도 다크호스로 꼽히고 있다. 임 후보는 12년 치욕의 시대를 마감하며 '사람부터 바뀔시다'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화순 민심을 헤집고 다니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영암군수

영암군수 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 전통평 후보와 무소속 김일태 후보, 무소속 최영열 후보의 3자 구도다.

전반적인 판세는 전통평 후보와 김일태 후보가 혼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 후보가 추격하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직 군수인 김일태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에서 '컷 오프' 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선거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무소속 후보들의 단일화는 선거 막판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

우선 새정치민주연합 전통평 후보는 경선에서 김재원 전 전남도 민원실장을 따돌리고 공천장을 획득했다.

전 후보는 지난 1991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최연소 전남도의원에 당선된 이후 전남도의원을 네 번이나 지냈다.

하지만, 전 후보의 선거 승리는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치적 중립감이나 친화력 등에서 경쟁자인 무소속 김일태 후보를 압도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 후보 측에서는 영암의 변화를 강조하며 지지세 확산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 공략에도 나서고 있다.

전 후보는 '클린 영암, 복지 영암, 명품 영암' 건설을 내세우며 유권자에게 다가서고 있다. 이를 위해 ▲예산절감을 통한 복지정책 확대 ▲청렴도 1위의 영암건설 ▲무화과와 매력 한우 등 지역 농축산물 브랜드화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무소속 김일태 후보는 3선 도전에 나서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배제라

■ 영암군수 후보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무소속	무소속
이름 전동평(53)	김일태(69)	최영열(51)
경력 ·전 전남도의원	·영암 군수	·전 전남도 종합민원실장
주요 공약 ·예산절감을 통한 복지정책 확대 ·청렴도 1위의 영암건설 ·무화과와 매력 한우 등 지역 농축산물 브랜드화	·친환경, 고품질, 고소득 농업 육성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기반 구축 ·귀농인 농촌일손 만족활동 맞춤형 지원	·행정-주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 혁신 ·경제-3대 거점개발과 일자리 창출 ·간소농 육성으로 역대 고소득 농업시대 개척

무소속 단일화 여부 선거 막판 최대 변수

친환경 고소득 농업 육성·복지 혁신 등 공약

는 약재가 있지만 재선 기간동안 구축한 조직력으로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두번의 군수 재임기간 무난한 균형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3선에 성공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재임 기간 동안의 성과를 내세우며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김 후보 측에서는 재임기간 동안 영암군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한 것은 물론 월출산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기간랜드 조성, '관광영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또 친환경 농업군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장출에도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는 재임기간 성과를 바탕으로 ▲친환경, 고품질, 고소득 농업 육성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기반 구축 ▲귀농

인 농촌일손 만족활동 맞춤형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무소속 최영열 후보는 박종영 도시사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전남도 최장수 민원실장을 지내는 등 박 지사의 복심으로 지냈다.

그는 전남도 민원실장을 지내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영암의 혁신을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반영하듯, '5대 혁신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행정-주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 혁신 ▲경제-3대 거점개발과 일자리 창출 ▲간소농 육성을 역대 고소득 농업시대 개척 ▲주민 삶을 보장하는 복지 혁신 ▲학생이 만족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교육혁신 등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영암=문병성기자 moon@

1·2선거구 모두 새정치 후보 우세속 진보당 맹추격

도의원

화순 전남도의원 선거전도 치열하다. 제1선거구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행주 후보와 통합진보당 전종덕 후보, 무소속의 김성구 후보의 3자 대결 구도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행주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으나 전남도의원 출신의 통합진보당 전종덕 후보의 추격전이 만만치 않다는 평가다.

여기에 화순 청년회의소 회장 출신의 김 후보도 지지세를 넓혀가고 있다.

제2선거구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민병홍 후보와 통합진보당 김기철 후보, 무소속 이형수 후보, 무소속 주승현 후보가 뛰고 있다.

통합진보당 김기철 후보는 진보성향 유권자와 농민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고, 화순군의회 의장 출신의 무소속 주승현 후보도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다. 동면 농협 조합장 출신의 무소속 이형수 후보도 농협 조직을 기반으로 농촌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화순 도의원 후보

선거구	이름 (나이·정당·경력)
제1선거구	문행주 (49·민·전 화순군의원) 전종덕 (42·전·전 전남도의원) 김성구 (61·무·화순농마르키 자원봉사센터장)
제2선거구	민병홍 (54·민·전 전남도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철 (45·전·통합진보당 화순군위원회 부위원장) 이형수 (54·무·전 동면농협 조합장) 주승현 (71·무·전 화순군의원)

*민=새정치민주연합, 진=통합진보당, 무=무소속

1선거구 우승희 단독출마...3파전 2선거구 새정치 강세

도의원

영암지역 전남도의원 선거는 좀처럼 바람이 불지 않고 있다. 제1선거구에서는 김기식 국회의원 보좌관과 유선호 전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의 우승희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고 단독 출마했다.

우 후보는 여론조사 경선에서 탈락했으나 불공정한 경선이 이뤄졌다는 중앙당의 판단에 따라 재경선을 치른 격전 끝에 후보로 확정됐다.

40세의 우 후보는 진보적 성향으로 합리적 성품을 갖고 있어 정치적 미래가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2선거구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연일 후보와 통합진보당의 최국진 후보, 정의당의 이보라미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연일 후보가 우세한 판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진보 진영에서 두 명의 후보가 출마한 것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최 후보와 정의당의 이 후보는 한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

■ 영암 도의원 후보

선거구	이름 (나이·정당·경력)
제1선거구	우승희 (40·민·전 국회의원 보좌관) 김연일 (51·민·전 영암군의회 의장)
제2선거구	최국진 (42·전·금속노조 전남서남지역지회 수석부지회장) 이보라미 (46·정·전 영암군의원)

*민=새정치민주연합, 진=통합진보당, 정=정의당

전을 펼치고 있으나 판세를 뒤엎기는 어렵지 않다는 관측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영암=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착한 음식을 만드는 정성 채널A의 마음입니다.

'이영돈 PD의 먹거리X파일'은 불량 먹거리를 고발하고 좋은 재료로 정성을 다하는 '착한식당'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정직한 노력으로 원칙을 지키는 식당 주인의 마음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채널A의 마음입니다.

꿈을 담는 캔버스 채널A

채널A <먹거리X파일> 이영돈 PD와 착한식당 <병드니까>의 이효용 대표